

가공 특성 우수한 검정보리 '흑누리' 개발

농진청, 흑누리 활용한 빵·커피·국수 등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판매

식품의 영양성분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성분을 함유한 색깔 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진청(농촌진흥청)은 가공 특성이 우수한 검정 보리 '흑누리'를 개발해 가공 제품 다양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흑누리'는 흑색을 띠는 색깔 보리 품종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건강기능성 보리로서 다양한 가공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농진청(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자색보리(자수정찰, 보색찰, 보안찰), 청색보리(강호찰), 흑색보리(흑나래, 흑누리, 흑

광) 등의 색깔 보리 품종을 개발했다.

흑누리를 이용한 제빵 시험 결과, 보급 품종인 '새쌀보리'에 비해 부피가 크고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 식감이 부드럽고 빵 만들기에 적합한 가공 특성 및 기호도를 나타냈다.

현재 흑누리를 활용한 빵, 커피, 국수 등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흑누리를 이용한 보리빵은 지난해 4월부터 '7계과' 1,273개 매장에서 흑보리 앙금빵, 할떡브레드 등의 시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장흥·고창 지역에서 계약 재배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카페인이 적은 보리 커피가 임산부나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에 인기다. 보리커피(59.9% 보리 함유)의 카페인 함량은 5.95mg/g으로 일반커피(15.5)의 절반 수준이다.

보리 커피 품종 선발을 위한 제조 시험 결과, 흑누리를 섞은 커피는 커피 내림시간이 가장 짧고, 맛과 색깔 등이 우수했다. 현재 'L업체'는 통상 실시를 통해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보리커피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흑누리를 포함한 색깔보리 제품은 국산 보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24톤(6만 달러)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울

해 예상 수출 물량은 약 40톤 가량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온라인판매 등을 통해 약 1,000톤 가량 유통됐으며, 올해는 오프라인 판매 등을 추진해 색깔 보리 유통량은 1,5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진청(농촌진흥청) 박기도 작물기초기반과장은 "가공 적성이 좋은 색깔보리 '흑누리' 개발 및 산업화 연계를 통해 보리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리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제일건설, 우수시공업체 시장 표창

'유성 오투그란데 리빙포레' 아파트 대전광역시 선정

30년 역사의 제일건설에서 공사중인 '유성 오투그란데 리빙포레' 아파트가 대전광역시에서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돼 20일 시장표창을 받았다.

민간건축 우수공사업장은 품질 및 시공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환경친화 기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디자인 기여도, 홍보효과, 민원 등 9개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서류 및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평가하는 검증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지하2층~최고 29층 8개동 778세대로 건립되는 오투그란데 리빙포레 단지는 2018년 7월 입주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에 초·중등학교가 인접하고 국립공원을 계룡산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단지와 더불어 2,440세대의 오투그란데 타운을 형성해 입주민들의 편의와 주변 경관이 잘 어울어진 우수한 주거 환경단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윤여용 대표는 "분양자에게는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주)제일건설은 7월 부안분덕 오투그란데 198세대를 시작으로 익산지역에 어양3차, 동산, 금마 등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재용 기자

'낙후 지역' 전주 북부권, 신형 주거중심지로 '활기'

도시 개발 사업·신규 아파트 분양 열기에 힘입어

전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손꼽혀왔던 북부권 지역이 도시개발사업과 신규아파트 분양 열기에 힘입어 신형 주거중심지로 활기를 띠고 있다.

전주 구도심의 대표적인 반월동과 동산동 일대 북부지역은 지난 십수년 동안 주로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등의 신규 아파트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주택의 노후화와 함께 슬럼화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 지역에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면서 노후화를 벗어난 새 도심으로 개편이 기대되고 있다.

우선 '반월동 세움밸리피아' 505세대가 반월동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주 북부권이 노후화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세움건설은 지난 2013년에도 반월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211세대를 공급했다.

세움밸리피아 1차 주상복합에 이어 2차 505세대까지 조성되면 주변 마트나 병원,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월동 세움밸리피아는 기존의 동일

한 중소형평형과 비교해 평면구성, 마감재가 우수하며 층별로 분암가를 차별화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용률이 높게 설계돼 소형이지만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다양한 수납공간과 편의성이 특징적으로 작동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영무건설도 지난 3월 인근지역인 여의동에 '영무에디온' 기업형 임대아파트 711세대를 분양하고 착공에 들어가면서 이 일대가 전주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전주의 관문이라 불리는 '호남제일문'과 인접한 입지와 호남, 서해안 고속도로 및 서부회도로로 익산, 완

주, 군산 등 시외와 인접,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라는 장점과 함께 신형명문 교육학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월초, 조촌초, 전북중, 우석고, 전북여고가 도보거리에 있어 교통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관계자는 "반월동 일대는 교통 및 편의시설이 풍부하지만 타 지역 신규 택지지역에 밀려 인구가 탈락상이 두드러졌다"면서 "하지만 최근 예곡시티,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 등의 개발과 함께 세움밸리피아가 새로운 주거환경을 선보이면서 이 지역 유통인구 증가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신보, 창업육성 플랫폼 제2기 참여기업 모집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Start-up NEST) 제2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유망 창업기업 발굴→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의 4단계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은 물론, 컨설팅·멘토링·기술지원·해외진출·M&A중개 등 비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올 상반기 사업성이 우수한 40개 기업을 제1기 스타트업 네스트 기업으로 선발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멘토링 등 맞춤형 1:1 액셀러레이팅 및 보증·투자심사를 진행하

고 있다.

이번기에는 총 60개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예정으로, 신청자격은 미래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으로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지 않은 기업이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선발한 제1기 스타트업 네스트 기업 40개사가 민간 투자유치, 거래처 확대 등 기대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스타트업 네스트를 통해 창출되는 유망 창업기업의 다양한 성공사례는 창업열기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도내 수출 희망기업과 간담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0일 도내 수출 희망기업과 수출 애로 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진원 홍용용 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운영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반기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사업 활용방안 및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해 월별 이메일링 및 정보제공에 협조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기계 수출업체 관계자는 "세계 경기 침체로 해외영

업이 힘들어졌으나 적극적인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상반기 호주 계약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외기기 업체는 "도내 우수 유학생, 외국인들을 활용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경진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기업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대중국 시장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장개척 및 시장정보를 제공해 서남 아시아를 비롯한 인도 등 포스트차이나 국가(이하 16개국) 미개척 지역에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통합마케팅 활성화 위한 전략회의 가져

전북농협은 20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갖고 "제값받는 농업 실현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밑거름이 되자"고 다짐했다.

전북농협과 관내 시군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원예농업 통합마케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전략회의는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 분석과 향후 추

진계획 발표, 통합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 등으로 2시간여동안 사뭇 진지한 분위기에 진행됐다.

전북의 통합마케팅 사업은 지난해 3,100억원의 사업 실적으로 전국 통합마케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물량면에서도 전북보다 3배 이상이 많은 경북·경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상반기 커리어 캠프 참가자 모집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는 도내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커리어(Career) 캠프' 참가자를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취업 역량 및 리더십 등을 개발해 영향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

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실시되며, 비전담구, 비전리스트 작성, 비전달성 액션플랜 세우기, 셀프마케팅 및 셀프 리더십 강화 등 참여형 워크숍으로 흥미롭게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카페(cafe.daum.net/jbkwkwdlgar) 또는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송부 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www.i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마늘

호박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농민들끼리
전주농협농민들끼리